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 오나

개원의-월급의사 원격의료·영리사업 시각차 與 “명분없고 국민불편” 野 “영리화 철회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에 강력히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의협 소속 전체 의사들의 투표 절차가 남아있지만, 만약 과반의 동의를 얻어 예정대로 3월초 파업이 실행되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약 14년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이라는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의협이 내세운 파업 이유 중 ‘낮은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보완’을 제외한 ‘원격의료’나 ‘영리병원(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수익사업 허용)’ 등의 경우 개인 의사와 종합·대형병원 의사의 입장차가 있어 파업 참여율이 기대 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철회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수익사업 허용(의협은 영리병원 전단계로 규정) 등의 수정·철회 ▲저수가 체계 보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논의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요구 사항에 진척이 있을 경우 파업을 유보하거나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업 최종 결정은 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의협 9만5000여 전 회원의 의사를 물어 과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의사들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모든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냈던 2000년보다는 파업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와의 갈등 요인 가운데 ‘저수가’ 문제가 해선선 의사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수익사업 등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개원의는 혜택이 별로 없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12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노환규 의협 회장 등 지역 대표 400여 명이 결의 내용을 공유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거나 불리한 변화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몰라도 규제가 완화되면 결국 자분이 많은 대형병원이 유리하다

반면 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의 의사들은 규제가 완화된수록 자신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의사들의 미묘한 이해 관계 때문에 파업이 결행되더라도

2000년 같은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파업 입장에 대해 함께 비판하면서도 “정사태의 해결 방안에는 견해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민영화라고 우기며 파업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불편만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환 의원은 구두 논평을 통해 “가급적 파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수서발 KTX 민영화 등에 이어 의료 영리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못하고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파업 논의의 원인이 된 의료영리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중기자 chae@

광주시 제2순환도로 승소에 전국이 들쭉

부산·경남등 벤치마킹 나서... 시민단체 환영 성명

광주시가 ‘인프라 공룡’ 맥쿼리와 조호호 변호사인 연합팀에 승소(광주일보 9일자 1·2면)하면서 전국이 들쭉이고 있다.

유사한 소송을 진행중인 부산과 경남 등이 벤치마킹에 나서다가 하면 시민사회단체들도 연이어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고법이 맥쿼리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유사 사례를 겪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맥쿼리 자분이 70% (1128억원)나 지분 참여한 마창대교와 관련해 맥쿼리측에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약내용 등에서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광주시의 승소 사례를 참고해 막대한 재정 낭비를 막아보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난 9일에 담당공무원을 광주시로 파견,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대응논리와 법리 해석 부분 등을 배워갔다.

부산시는 이미 광주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정터널과 백양터널 민간사업자(맥쿼리 등)에게 ‘자금지조 시장’을 위한 감독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은 자본구조 변경 내용이 광주시와 사실상 동일해 이번 승소 소식에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부산의 소송을 맡은 변호인도 광주 승소를 이끌어 낸 안명환 변호사다. 부산시는 맥쿼리측이 광주 사례처럼 자본구조 변경 등을 통해 지금까지 이자뿐만 건설비의 2배에 달하는 3000억원 이상

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승소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칭찬 릴레이는 물론 윤영권 반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서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절감하게 됐다”며 “국채 투기 자본의 왜곡된 경영 행태에 경종을 울린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자치 21도 논평을 내고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 판결을 환영하고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 광주시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민생활환경회의는 “맥쿼리는 명분 없는 시간 끌기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즉각(광주시에) 넘겨야 한다”며 “광주시는 맥쿼리가 자본구조변경으로 취한 혈세(1401억원)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이날 현재 경 등을 통해 지금까지 이자뿐만 건설비의 2배에 달하는 3000억원 이상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이날 현재 경 등을 통해 지금까지 이자뿐만 건설비의 2배에 달하는 3000억원 이상

새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3월8일 개장식, 시민과 함께

광주에 11번째 프로야구 우승을 안겨 줄 현장이 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광주시는 12일 “오는 3월 8일 새 야구장(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개장식을 열 계획”이라면서 “역사적인 개장식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행사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장식은 시민참여형으로 치러지며, 시는 행사와 관련해 참신한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하기로 했다.

시는 KIA타이거즈 V11 승(한국시리즈 11승)을 기원하는 의미로 기념식수에 참여할 시민대표 11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 접수도 받는다.

지난 2011년 11월 착공한 광주의 새 야구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다. 새 야구장에는 2만 2000명의 동시 수용이 가능하다. 전광판은 풀 칼라 HD급(35m×15m)으로 전 세계 야구장 중 최고수준이다. 조망시설은 최적 조도를 유지해 눈부심을 방지했고, 정전 대비상 점등이 가능하다. 음향시설은 강의 음질 확산이 방지되도록 설치했으며, 야구장 주변에 관목 등 5000그루를 식재했다. 광주시는 기존 무등야구장은 생활체육인과 야구동호회 등 야구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아이디어 공모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체육진흥과(062-613-3542, 613-3553)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공짜 해외여행에 분할발주까지

전남도, 보성군 종합감사 부당행정 89건 적발

보성군 일부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분할발주를 통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했다가 전남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가 12일 “보성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정행위 89건을 적발해 3명을 징계, 88명은 훈계하는 등 94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19억2000여만원은 회수하거나 추징·감액 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성군청 공무원 4명은 보조금 지원 기관에서 지난 2년간 경비 1160여만원을 받아 외유를 다녀왔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환경보전방안 협의 전에 공사를 추진했다가 중지 통보를 받은 한 골프장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것도 감사에 지적됐다. 보성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골프장은 등

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위원과 의원 배우자의 생일 꽃바구니, 업체 계약 화환 등에 15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사무실 환경정비로 조작하고 사무 관리비로 지역특산품을 구입,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들들났다.

이 밖에 선소 복합뉴스공인 조성 사업은 기초과일에서 녹이 발생, 보수급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별교 스포츠센터 조성공사는 시공감리 부실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들 공사는 모두 9억여원의 재시공, 감액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80억원 규모의 보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관공서 계단, 창호부분 콘크리트 조잡 시공, 경사면 잔디고사 등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에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의 가칭 ‘영광타워’가 오는 9월 준공된다.

전남도는 12일 “지난해 5월 착공한 이 타워는 부지 4234㎡에 건물면적 205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시도비 등 모두 100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타워는 영광의 대표 특산물인 굴비의 비늘과 파도, 바람, 태양을 조형화했다. 또 전시장, 전망대 등 타워 시설과 함께 서남해안에서 갖 잡은 싱싱한 물고기와 조개 등을 파는 활선이 판매장, 지역 특산물 판매장도

함께 들어선다. 타워 주변에는 인근 방파제를 활용한 수변공원과 분수대, 야외체험장, 산책로 및 운동시설, 광장 등이 조성된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이 타워가 백수해안도로, 영광대교 등과 연계한 지역의 대표적 해양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지난 2002년 건립된 땅굴 전망대(높이 39.5m)를 비롯해 안도타워(76m·2008년), 정남진전망대(45.9m·2011년), 고흥 우주발사전망대(52m·2012년), 진도타워(60m·2013년) 등이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탁이 바뀔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탁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컵술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편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14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4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 대체산업융자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광해관리공관이사장

1. 지원규모: 융자사업비 총 170억원

- (정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차입금: 20억원
- (공단) 대체산업융자 준비금: 150억원
- ※ (공단)전년도 융자사업비 중 잔여예산 발생시 '14년도 융자사업비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당해년도 신청업체에 한함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 또는 관광레저업종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 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
 - ※ 1.은행(신규)에 의한 담보능력평가(신용보증서 등) 및 대출인정액(기)능력(이하 2. 창업 및 이전)이 없는 당해 연도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경과하지 아니해야 함
-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시설자금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설치와 관련된 자금(세정공과금, VAT 등 제외) (※ 단,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장비비용은 지원 불가)
운영자금	재정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3. 지원조건

구 분	기간(거치/상환)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대출금리
시설자금	5년/5년	5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대출금리 + 1.5%)
운영자금	2년/3년	5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연평균 5.5%

※ 1. 융자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운영자금은 '14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지원하며, 기존에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대출원리금 상환은 분기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함

4. 신청절차

- 신청서류: 공단 홈페이지(http://www.mireco.or.kr)에서 다운
 - 융자금 지원신청서 3부(해당 도 1부, 시·군 각 1부, 공단 1부)
 - 시설자금 산출내역(세상계도서 구비)
- 신청기간: 2014. 1. 13. ~ 2014.2.21(40일)
- 접 수 처: 해당 시·군 담당부서

5. 기타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계획 고시 제 2012-273호, 2012.11.12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또는 해당 기술택지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 ※ 지원 및 접수 관련 문의처

한국광해관리공관	지역진흥실	02-3702-6628
지 지 제	태백시청	033-550-2408
	삼척시청	033-570-4754
	정선군청	033-560-2438
	영월군청	033-370-2795
	보령시청	041-830-3355
문경시청	054-550-6182	
화성군청	061-379-3041	